

# 醴泉地域의 退溪學脈

黃 渭 周\*

##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門人集團의 主要 特徵 |
| 2. 門人의 地域的 分布와 醴泉 | 5. 結論          |
| 3. 醴泉地域 退溪門人의 現況  | — 後代的 繼承 問題    |

## 1. 머리말

본고는 퇴계학파의 지역적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그 중 특히 예천군 지역에 존재했던 퇴계학맥의 구체적 실상과 그 특징을 구명하려는 목적에서 집필하였다.

예천은 예천읍을 중심으로 하여 감천면 개포면 상리면 보문면 용궁면 용문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하리면 호명면 등 12개 행정구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와같은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당시의 상황과 약간 차이가 있다.<sup>1)</sup> 그러나 예천이라고 할 때 통념상 떠올리는 대상이 바로 현재의 행정구역임을 감안하여, 본고는 현 예천군 지역 전체를 논의의 범위로 삼는다.

예천은 퇴계의 학문적 근거지였던 禮安과 지리적으로 대단히 가깝다. 그래서 퇴계의 학문적 영향력이 가장 강하고도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곳이며, 도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동국여지승람을 검토해 보면, 감천면 지역은 甘泉縣으로 安東大都護府의 屬縣이었고, 龍宮縣은 예천과 상관 없는 독립 縣이었으며, 현재 의성군 다인면 지역인 多仁縣은 예천군의 속현이었고, 서쪽으로 문경군 동로면 지역이 예천군에 속하여, 전체적으로 주변의 안동 의성 용궁 문경과 犬牙相制의 형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조선시대 당시 예천의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을 왕래하며 공부하기에도 지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퇴계 문인이 많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직 아무도 그 구체적 실상을 밝힌 적이 없다.

본고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 예천이 퇴계 문인의 전체적 분포에 있어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 지역 及門弟子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 소개한 뒤, 그 집단적 특징과 후대적 계승문제를 차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 2. 門人의 地域的 分布와 醴泉

퇴계의 문인록은 蒼雪齋 權斗經(1654~1726)이 처음 『溪門弟子錄』을 작성한 이래, 靑壁 李守淵(1693~1748) 山後 李守恒(1695~1768) 廣瀨 李野淳(1755~1831)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고, 1914년 도산서원에서 이상의 四家本을 다시 종합 보완하여 甲寅本 『陶山及門諸賢錄』으로 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997년 權五鳳이 『陶山及門諸賢錄』에 수록된 309명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가나다 순서로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였고,<sup>2)</sup> 1998년 김종석이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退溪門人 師承關係圖表〉를 발표하기도 하였다.<sup>3)</sup> 따라서 이 분야 연구로는 김종석의 연구가 가장 최근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를 근거로 먼저 퇴계문인 309명의 지역적 분포를 큰 지역 단위별로 정리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權五鳳, 退溪書集成(포항공과대학출판부, 1997), 1책, 陶山弟子便覽

3)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과 退溪 學統弟子의 범위, 한국의 철학(경북대 퇴계연구소) 제26호, 1998.

표1: 退溪門人의 全國의 分布 狀況<sup>4)</sup>

영남지역	<p>3.李楨 4.朴雲 5.崔應龍 6.盧守愼 14.黃俊良, 15.朴承任 16.張壽禧 17.金生溟 18.權東輔 19.黃應奎 20.李叔樛 22.李元承 23.金彥璣 24.吳健 25.琴輔 26.吳守盈 27.金克一 28.孫英濟, 30.權大器 32.朴承倫 33.金宇宏 34.裴紳, 35.金富仁 36.金富弼 37.金富信 38.金富儀 39.金富倫 41.趙穆 42.金八元 43.金樂春 46.鄭以清 48.具鳳齡 50.鄭琢, 51.琴應夾 55.金守一 56.南夢鰲 57.朴愼, 58.琴蘭秀 59.閔應祺 61.朴士熹 63.權好文 64.鄭惟一 65.李中立 66.權宣 67.金明一 68.裴三益 69.權文海 78.金誠一 79.柳仲淹 80.鄭崑壽 81.柳雲龍 83.金士元, 84.權春蘭 85.金功 86.金宇顯 87.琴應壘 88.吳澐 91.金沔 93.金復一 94.李命弘 95.李福弘 96.李德弘 97.柳成龍 98.申馮 99.申演 106.金箕報 108.南致利 109.鄭述 110.曹光益 111.曹好益 113.鄭士誠 117.李愈 118.李憲 119.琴은(?) 120.李應 122.李光承 127.金澤龍 131.金得可 132.邊永清 133.金典 134.金圻 136.朴濟, 138.金隆 139.宋福基 143.權宇 144.朴雲 146.白見龍 149.琴義筍 150.琴悌筍 151.張謹 153.南弼文 154.高應陟 156.李淳 160.李國樛 161.金壽愷, 162.金壽恢 164.文命凱 165.安齋 166.琴鳳瑞 167.孫興禮 168.孫興慶 173.鄭允良 174.盧遂 175.金應生 176.具贊福 177.具贊祿 178.朴遂一 179.全續 181.申暹 182.朴櫛 184.權景龍 185.權東美 189.周博 196.金溲 197.權伯麟 198.郭澣, 204.安克誠 209.李好閔 214.李士愿 222.李光友 228.朴世賢 232.全慶昌 236.黃耆老 238.琴仰聖 239.李侁 241.李文奎 242.李庭檜 243.李逢春 244.李庭柏 245.李亨男 246.李寅 247.李完 248.李宏 249.李宜 250.李宰 251.李宓 252.李憑 253.李窩 254.李霧 255.李교 256.李眞 257.李沖 258.李宗道 259.李閔道 260.李安道 261.李혜 262.李純道 263.李揆道 264.李詠道 265.裴漸 266.琴應石 267.許士廉 269.申元綠 270.李閔樛 271.金廷憲 273.林芸 275.李衍樛 276.琴應商 277.李令承 280.金得礪 281.蔡應龍 282.徐仁元 285.宋鉉 286.黃遂良 287.金夢龜 288.辛弘祚 293.李士純 294.康崙 295.俞大脩 297.徐崦 300.姜翰 301.權敏義 302.裴三近 303.權禧 304.李元晦 305.李希程 306.李憲 307.李仁福 308.李騫 309.李善道 (총180명)</p>
서울경기	<p>1.鄭之雲 2.李湛 7.洪仁祐 8.韓脩 9.申沃 10.韓胤明 12.李咸亨 13.許忠吉 21.金德龍 29.朴淳 31.洪渾 40.朴濟 44.金德鵬 47.鄭芝衍 49.金就礪 71.成渾 72.李珥 73.李應進 74.尹根壽 75.許曄 76.金命元 77.徐嶸 82.李誠中 100.禹性傳 101.宋言愼 102.金孝元 103.朴漸 107.李敬中 112.金悌甲 114.金陟 115.李養中 116.趙振 121.李國弼 126.南彥紀 129.沈喜壽 135.柳根 137.洪迪 141.許箴 142.許筍 145.金泰廷 147.成洛 155.金希禹 157.李達 159.呂世潤 163.趙摯 180.崔德秀 183.金戣 195.尹卓然 199.金忠男 203.崔聘齡 208.趙忠男 240.曹建 278.李陽元 283.尹斗壽 284.沈義謙 292.尹噉(총56명)</p>
호남	<p>52.朴光前(寶城) 53.奇大升(光州) 70.文緯世(長興) 89.卞成溫(湖南) 90.卞成振(湖南) 123.尹剛中(海南) 124.尹欽中(海南) 125.尹端中(海南) 130.梁子徵(昌平) 223.金允明(順天) 291.曹大中(和順) (총11명)</p>

4) 번호는 도산급문계현록의 수록 차례를 표시함. 徐嶸처럼 한 사람에게 대하여 두 지역이 동시에 기록된 것은 앞 지역을 따라 처리하였음. 이후 동일.

충청 (忠州) (충5명)	54.南彦經(忠州) 92.洪可臣(湖西) 105.李堯臣(牙山) 140.申湜(淸州) 296.朴民獻(忠州) (충5명)
강원	62.崔雲遇(江陵) 104.丁胤禧(原州) (충2명)
출신지 불분명	11.柳希春, 45.具思孟, 60.閔應祿, 128.李容, 148.洪胖, 152.南색, 158.李天機, 169.李光軒, 170.申漢, 171.申漢, 172.洪仁祉, 186.申澱, 187.金啓 188.崔顯 190.林芑 191.曹駿龍 192.姜文佑 193.權春桂 194.趙容京 200.蔡承先 201.朴寬 202.朴枝華 205.尹興宗 206.金成璧 207.李純仁 210.金玄度 211.金守愚 212.卞成 韜 213.辛乃沃 215.金弘度 216.權洙 217.李善承 218.李克承 219.洪益昌 220.洪亨 叔 221.郭守仁 224.朴敬章 225.朴仲章 226.李大潤 227.金伯起 229.李揚若 230.金 希仲 231.朴允誠 233.柳淇 234.權士立 235.蔡致遠 237.朴應烈 268.許千壽 272.李 宗仁 274.任肅臣 279.權義叔 289.洪聖民 290.金夢得 298.朴頤 299.朴大立 (충55 명)

위의 표를 보면 퇴계문인 전체 309명 중 영남지역 인물이 180명, 서울 경기지역 인물이 48명, 호남지역 인물이 11명,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 인물이 각각 5명과 2명, 기타 출신지가 불분명한 인물이 약 55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출신지가 불분명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254명만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영남지역 인물이 약 71%, 서울 경기지역 인물이 약 22%, 호남 지역 인물이 약 4%, 기타 충청 강원 지역 인물이 합쳐서 약 3% 정도로 나타난다.

이 통계수치는 약간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徐嶸처럼 서울에서 안동으로 移住한 사람을 어디로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異見이 있을 수 있고, 辛乃沃 처럼 출신지가 명백한(예천 감천) 사람이 출신지 불분명으로 처리된 예가 간혹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 착오에 불과하며, 전체적 분포 상황을 파악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표를 통해, 퇴계 문인의 전국적 분포에 있어서, 영남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2: 嶺南地域 退溪門人の 地域別 分布 狀況<sup>5)</sup>

예안 지역	17. 金生溟 20. 李叔樑 22. 李元承 25. 琴輔 26. 吳守盈 35. 金富仁 36. 金富弼 37. 金富信 38. 金富儀 39. 金富倫 41. 趙穆 51. 琴應夾 58. 琴蘭秀 61. 朴士熹 87. 琴應堦 94. 李命弘 95. 李福弘 96. 李德弘 119. 琴은(?) 122. 李光承 127. 金澤龍 133. 金典 134. 金圻 149. 琴義筍 150. 琴悌筍 160. 李國樑 176. 具贊福 177. 具贊祿 197. 權伯麟 214. 李士愿 238. 琴仰聖 246. 李寅 247. 李完 249. 李宣 250. 李宰 251. 李宓 252. 李憑 253. 李窩 254. 李騫 255. 李교 256. 李寅 258. 李宗道 259. 李閔道 260. 李安道 261. 李혜 262. 李純道 263. 李揆道 264. 李詠道 266. 琴應石 270. 李閔樑 275. 李衍樑 276. 琴應商 293. 李士純 304. 李元晦 306. 李憲 307. 李仁福 308. 李騫 *총 57명
안동 지역	18. 權東輔 23. 金彦璣 27. 金克一 30. 權大器 42. 金八元 43. 金樂春 46. 鄭以淸 48. 具鳳齡 50. 鄭琢 55. 金守一 63. 權好文 64. 鄭惟一 66. 權宣 67. 金明一 68. 裴三益 78. 金誠一 79. 柳仲淹 81. 柳雲龍 84. 權春蘭 93. 金復一 97. 柳成龍 106. 金箕報 108. 南致利 113. 鄭士誠 131. 金得可 132. 邊永淸 143. 權宇 165. 安壽 166. 琴鳳瑞 167. 孫興禮 181. 申暹 185. 權東美 196. 金濩 241. 李文奎 242. 李庭檜 243. 李逢春 244. 李庭柏 245. 李亨男 280. 金得礪 294. 康崙 297. 徐崦 300. 姜翰 301. 權敏義 302. 裴三近 303. 權禧 305. 李希程 *총 46명
영주 - 풍기	15. 朴承任 16. 張壽禧 32. 朴承倫 56. 南夢鰲 59. 閔應祺 85. 金功 88. 吳溪 138. 金隆 151. 張謹 164. 文命凱 168. 孫興慶 182. 朴櫛(이상 영주 12명) 14. 黃俊良, 19. 黃應奎 198. 郭澣, 286. 黃遂良(이상 풍기 4명) *총 16명
예천 - 용궁	69. 權文海 117. 李愈 118. 李憲 120. 李應 139. 宋福基 144. 朴蓑 248. 李宏 257. 李冲 277. 李令承 288. 辛弘祚(이상 예천 10명) 65. 李中立(龍宮 安東) 179. 全續 204. 安克誠(이상 용궁 3명) (총 13명)
성주 지역	33. 金宇宏 80. 鄭崑壽 86. 金宇顛 109. 鄭述 156. 李淳 285. 宋鉉 (총 6명)
영천 - 신령	282. 徐仁元 111. 曹好益 173. 鄭允良 175. 金應生 174. 盧遂(이상 영천 총 5명) 287. 金夢龜(新寧) *총 6명
선산 지역	4. 朴雲 5. 崔應龍 154. 高應陟 178. 朴遂一 236. 黃耆老 (총 5명)
대구 - 현풍	232. 全慶昌 281. 蔡應龍(이상 대구 2명) 34. 裴紳, 161. 金壽愷, 162. 金壽恢(이상 현풍 3명) *총 5명
기타 지역	83. 金士元, 136. 朴濟, 269. 申元綠(이상 의성 3명) 146. 白見龍 228. 朴世賢 309. 李善道(이상 영해 3명) 28. 孫英濟, 57. 朴愼, 153. 南弼文(이상 밀양 3명) 尙州 (6. 盧守愼) 高靈(91. 金沔) 青松(98. 申馮) 安德(99. 申演) 咸昌(184. 權景龍) 軍威 (209. 李好閔) 順興(265. 裴漸) 奉化(271. 金廷憲) 杞溪(295. 俞大脩), 泗川(3. 李楨) 山陰(24. 吳健) 昌原(110. 曹光益) 漆原(189. 周博) 山淸(222. 李光友) 咸安(239. 李僞) 宜寧(267. 許士廉) 安義(273. 林芸) 총 26명

5) 풍기 용궁 신령 달성 등은 원래 독립 郡縣이지만 현 행정구역 상 각각 영주 예천 영천 대구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파악하였다. 예안은 현재 안동에 편입되었지만, 퇴계가 직접 講學을 한 근거지일 뿐만 아니라, 거주 문인의 수가 많아서 편의상 구분하였다.

위의 표2는 영남지역 퇴계 문인 약 180명이 자체 내에서는 대체로 어떤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를 다시 세부 지역 단위별로 분류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밀양(3) 사천(1) 산음(1) 창원(1) 등 경상남도 인물 약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0여명이 모두 경상북도 인물이고,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예안 지역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안동 지역이 46명으로 그 다음이며, 영주-풍기 16명, 예천-용궁 13명, 성주와 영천-신령이 각 6명, 선산과 대구-현풍이 각 5명, 나머지는 모두 3명 이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남지역 자체 내에서의 이런 세부 지역별 분포 상황은, 예천-용궁지역에 대한 필자의 검토 결과, 정확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듯하였다. 예컨대 예천-용궁 지역 인물로 분류한 安克成은 증조부 때부터 안극성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산소가 모두 경기도 시흥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인물이 분명한 듯하다. 그리고 예안 인물로 파악했던 李完 李宗道 李宓 李闕道 李揆道 등 5명은 실재 예천 용문면과 호명면 지역에 거주하였고, 안동으로 파악했던 鄭琢 金復一과 영주-풍기 지역으로 파악했던 張謹도 모두 당대에 예천으로 移住하였다. 金八元과 辛乃沃은 그 근거지가 원래 안동의 屬縣인 감천현이었으나, 현재는 이곳이 예천군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예천 인물로 불만하였다. 따라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면, 위의 통계수치는 예안 52명, 안동 43명, 예천-용궁 22명, 영주-풍기 15명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sup>6)</sup>

어떻든 영남지역 퇴계 문인의 분포는 경상좌우도 중 좌도 지역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고, 좌도지역 가운데서도 퇴계의 근거지였던 예안과 안동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으며, 예안과 안동을 벗어난 지역 중에서는 예천이 수적으로 가장 많은 인물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퇴계 문인의 수적 분포에 있어서는 예천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비중이 높은 퇴계 학맥의 핵심 근거지라 할 수 있으며,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宋遺慶과 그의 두 아들 宋汝能 宋汝玉이 모두 예천에 거주한 퇴계 문인으로 밝혀진 바 있어서,<sup>7)</sup> 이런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6) 자세한 근거는 본고 제3장 “醴泉地域 退溪門人の 現況”에 기술된 해당 인물 조항 참고.

7) 權五鳳, 退溪書集成1, 陶山弟子便覽, 2. 後篇, 1997.

### 3. 醴泉地域 退溪門人の 現況

예천에 거주한 퇴계 문인은 위의 표2에서 예천 용궁지역 인물로 분류한 13명 중 안극성을 제외한<sup>8)</sup> 12명, 다른 지역 인물로 분류한 사람 중 예천 지역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10명, 기타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지 않은 인물 3명 등 약 25명 정도를 거론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도산급문제현록과 기타 현존하는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 25명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급문사실 및 저술 현황을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9)</sup>

#### 1) 醴泉邑 地域의 門人

##### ① 鄭琢(급문록50) ;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sup>10)</sup>

鄭琢(1526~1605)의 자는 子精, 호는 藥圃, 처음 호는 梅巖, 본관은 淸州이다. 도산급문제현록에는 안동에 거주하다가 후에 예천으로 옮겨 살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외가인 예천 용문면 下金谷 柳田(버들밭)에서 출생하여 자랐고, 9세 때 어머니 喪을 당한 뒤, 11세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시 안동 佳丘村에서 거주하였으나, 20세 이후 다시 아버지를 따라 외가 곳인 용문면 금당실에 거주하였다. 23세 때는 예천읍 고평동에 거주하던 觀物堂 潘冲<sup>11)</sup>의 딸과 혼인

8) 안극성의 증조부는 회양부사 安該, 조부는 현감 安尊義, 아버지는 의성현감 安瀚이다. 안극성은 安瀚의 세 아들 중 맏아들인데, 안한이 의성현감으로 있을 때 이곳에 와서 퇴계문하에 입문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에는 이런 출신 관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권오봉이 퇴계서집성 1833쪽 주석에서, 居龍宮이라 하였는데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버지가 의성현감으로 있을 당시에 일시 이 지역에 寓居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그 유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용궁 월오리에 남아 있는 순흥안씨 유적은 안극성과 전혀 상관 없는 제2파 집안의 것(안극성은 제3파)이며, 증조부부터 안극성 자신에 이르기까지의 묘소가 모두 시흥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 인물이 분명한 듯하다. 이런 내용은 용궁면 월오리에 거주하는 안기식 선생(TEL:054-653-6856)의 자문을 참고하였다.

9) 예천지역 퇴계 문인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전 예천 대창고등학교 교장 鄭良秀 선생께서 (TEL:054-652-3146) 많은 자문과 안내를 해 주었다.

10) 이 부분은 약포 종손 鄭完鎭선생(TEL:054-654-5682)의 자문을 받았다.

11) 巨濟人 觀物堂 潘冲은 원래 예천군 용문면 上金谷에 살던 烏原道察訪 潘濡의 5대

하였고, 30대에 벼슬을 시작하여 줄곧 서울에 거처하다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는 처가 곳인 고평동에 완전히 정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부모 산소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일체의 유적이 예천에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탁은 예천 인물로 봄이 마땅하다.

정탁은 17세(1542) 때 퇴계 문하에 처음 들어가 心學의 요지를 배웠고, 27세(1552) 때 생원시, 33세(1559) 때 文科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교서관정자(34세) 진주교수(36세) 성균관전적(40세) 홍문관수찬 교리(42세) 이조정랑(49세) 도승지(51세) 대사헌(56세) 이조판서(63세) 우의정(70세) 등 중앙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致仕 후 고평동에 정착한 뒤에는 高坪洞契約文을 만들어 향촌 교화에 관심을 표하였고, 고평동 건너편에 攄湖亭을 짓고 왕래하기도 하였으며, 이 곳에서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영의정에 추증되고, 貞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숙종26년(1700) 그의 杖履之所에 道正書院을 건립하여 위패를 봉안하였는데, 현재도 남아 있다.

1760년 5대손 황해도관찰사 鄭玉이 왕명에 따라 원고를 수습하여 문집 7권을 목판으로 간행하였고, 1818년 후손 鄭光翊 등이 續集 4권을 간행하였으며, 현재 藥圃集 전체 11권 6책이 전해지고 있다. 퇴계가 그에게 직접 보낸 편지가 16통이나 있고<sup>12)</sup>, 다른 사람의 편지 가운데도 그에 대한 언급이 간헐적으로 발견되며<sup>13)</sup>, 예천읍 고평동과 그 건너편인 호명면 황지리에 그의 神道碑와 靖忠

---

손이고, 咸昌縣監 潘混의 고손자인데, 고조부 潘混 당시에 용문면 上金谷에서 예천읍 高士坪(고평동)으로 옮겨 세거하였다. 이런 사정이 양양지에 기록되어 있다. 潘冲은 나중에 그가 修養 自適하던 예천군 용궁면 德溪里 達溪마을로 이사하였다. 그래서 현재는 觀物堂과 사당인 忠孝祠가 모두 용궁 덕계리에 있다. 묘소는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獨貞山에 있고, 묘갈명이 있다.

- 12) 答鄭子精(퇴계63세;1563, 퇴계서집성 1701쪽) 答鄭子精(63세;1563, 1702쪽) 答鄭子精(63세;1563, 1703쪽) 答鄭子精(64세;1564, 1942쪽) 答鄭子精(64세;1564, 1942쪽) 答鄭子精(65세;1565, 2262쪽) 與鄭子精(65세; 1565, 2652쪽), 與鄭子精(65세;1565, 2654) 答鄭子精(65세;1565, 2655쪽) 答鄭子精(65세;1565, 2656쪽) 答鄭子精(65세;1565, 2657쪽) 與鄭子精(69세;1569, 3569쪽) 答鄭子精(69세;1569, 3569쪽) 答鄭子精(70세;1570, 3889쪽) 答鄭子精(70세;1570, 3896쪽) 등 16편이다.
- 13) 答鄭直哉(퇴계57세;1557, 퇴계서집성 701쪽) 與鄭直哉(58세;1558, 810쪽) 등



祠 挹湖亭 道正書院 등의 유적이 보존되어 있다.

② 宋福基(급문록139) :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sup>14)</sup>

宋福基(1541~1605)의 자는 德久, 호는 梅圃, 본관은 冶城이다. 冶城君 宋吉昌의 후손으로 형조참의 宋儀와 안동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영주에 살면서 처음에 嘯臯 朴承任에게 배우고, 나중에 선생의 문하에 입문하였는데, 이때 퇴계가 秀才라고 칭찬하면서 손수 克己銘, 求放心齋銘 등을 쓴 뒤 小識을 지어 주었다.<sup>15)</sup> 예천읍 고평동에 거주하던 퇴계의 생질 習讀 辛弘祚<sup>16)</sup>의 무남독녀에게 장가들어, 영주에서 처가 곳인 예천 고평동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그래서 東浦亭<sup>17)</sup> 廣川祠<sup>18)</sup> 玉川書院<sup>19)</sup> 등 그와 관련된 일체의 유적이 예천에 있고, 묘소도 여기에 있으며<sup>20)</sup>, 오늘날까지 그의 집안에서 신흥조를 외손 봉사하고 있다.

선조9년(1576, 36세) 사마시에 급제한 뒤 성균관 유생들의 추천으로 召村道 察訪에 임명되었고, 1592년(52세) 처가 고을인 醴泉 假守를 역임한 바 있으며, 여타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문집 2권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학사 金應祖가 쓴 墓碣銘이 남아 있지만 대단히 소략하다. 퇴계가 종손자 李閱道와 그에게 동시에 보낸 편지 1통이 남아 있고<sup>21)</sup>,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

이 있다.

14) 이 부분은 예천읍 고평동의 梅圃 종손 宋大翼선생(054-654-9303)의 자문을 받았다.

15) 퇴계가 그에게 써 준 글은 이를 포함하여 畫屏題八絶 등 32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중 16폭이 현재 종가에 전해오고 있다. 실물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16) 寧越辛氏 典法判書 毗의 후손이다. 퇴계가 쓴 辛達廷의 묘갈명 즉 「寧越辛公墓碣銘」(퇴계집 권47, 문집총간 30책 539쪽)을 보면 이들의 가계가 毗-裾-唐系-元佑-憫-帶犀-寶重(伊沙里入鄉祖)-守-達廷-壽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신흥조는 達廷의 族姪로 기록되어 있다.

17) 송복기 당시에 건축한 것으로, 예천읍 고평동에 있었으나,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18) 廣川書院이라 표기한 예도 있다. 예천읍 우계리 어리촌에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하고 없다.

19) 원래 보문면 옥천에 있었으나, 현재는 감천면 덕울에 있다.

20) 현 예천군 동쪽 보문면 신월리 瓮正山에 있다.

21) 與宋秀才閱道兼寄(퇴계70세;1570, 퇴계서집성 3768쪽)

지 중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4통 있다.

③ 張謹(급문록151) ; 醴泉郡 醴泉邑 東本2洞<sup>22)</sup>

張謹(1544~1619)의 자는 而信, 호는 潛齋, 본관은 단양이다. 고조부 兢庵 張祉는 강원감사였고, 증조부 張德康은 제주목사였으며, 조부 張用寬은 翰林, 아버지 張明良은 將仕郎을 지냈다.<sup>23)</sup> 도산급문제현록에 “榮川(지금의 영주)에 살았다” 라고 하였으나, 金胤錫이 지은 德滿亭記<sup>24)</sup>에는 “원래 湖西지방에서 성장하였는데, 퇴계의 명성을 듣고 공부하기 위해 從孫 張潛과 함께 영주에 와 살았으며, 아버지 상을 당하여 묘소를 예천군 동본동 羊腸山 아래 德滿原에 모신 뒤, 추모하는 마음에 차마 이 곳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世居하게 되었다”<sup>25)</sup> 라는 요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예천읍 동본동에 德滿亭이 남아 있고, 그 경내에 후대에 세운 것이긴 하지만 神道碑가 세워져 있으며, 이 일대에 단양 장씨들이 세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주에서 예천 동본동 지역으로 이주한 예천 인물로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산급문제현록에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선생이 李宏仲에게 답한 편지에 ‘誠意章에 있는 두 개의 獨자는 오늘날 사람이 陳氏의 설을 잘못 보고 身과 心의 구분을 두었는데, 나 또한 지난날 그 설을 따랐으나, 근래에 바야흐로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으니, 지금 보여준 張氏의 설이 옳다네’ 라고 하였다. 졸년이 76세이다. 선생에게 드린 제문이 있다” 라는 정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퇴계의 편지 가운데도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sup>26)</sup> 문집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예천 동

22) 이 부분은 정량수선생(전 대창고등학교 교장)의 안내로 德滿亭을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23) 예천읍 동본2동 德滿亭 경내에 있는 金憲洙의 潛齋張先生神道碑銘并序에 근거하였다.

24) 德滿亭은 단양장씨 문중에서 潛齋張謹을 위해 1942년 재건한 정면4 측면1.5칸의 정자인데, 여기에 金胤錫이 지은 德滿亭記가 현판으로 걸려 있다.

25) 金胤錫, 德滿亭記, “始公生長於湖西一切於求師就道 聞老先生講學東南 爲斯文宗師 與從孫鹿堂公潛 寓居于嶺底之榮川 蓋以去陶山不遠而門賢多在其鄉 便於麗澤矣一及丁先公憂 襄奉于德滿原 居墓三年 哀毀逾制 又不忍遠離墳塋 就塋下居焉 爲日夕瞻慕之地”

26) 答李宏仲問目(퇴계서집성 2624쪽)에 대학 誠意章 慎獨의 獨자 해석에 대해 탁월

본동에 德滿亭과 그 記文 및 神道碑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④ 辛弘祚(급문록288) ;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sup>27)</sup>

辛弘祚(생몰연 미상)의 자는 而慶, 호는 伊溪, 본관은 寧越이다. 퇴계의 姊兄 參奉 辛聃의 아들이고, 퇴계의 생질이며, 梅圃 宋福基의 장인이기도 하다. 조모 巨濟潘氏가 이 지방에 살던 潘濡의 딸이고, 조부 察訪 辛寶章의 산소가 이 지방에 있는 것으로 보아,<sup>28)</sup> 조부 때 함창에서 처가 곳인 이곳으로 옮겨와 世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9)</sup> 퇴계가 辛聃과 그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낙동강 가 고평동에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도산급문제현록에 “퇴계의 생질이다. 習讀의 벼슬을 지냈다. 선생을 위해 쓴 제문이 있다” 라는 지극히 간단한 기록만 있고, 구체적 급문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후손이 없어서 사위 송복기 집안에서 외손봉사하고 있다. 문집도 없고, 다른 기록도 없으며, 다만 퇴계가 만년에 그에게 보낸 편지 3통<sup>31)</sup>과 다른 편지 중 그가 언급된 예를<sup>32)</sup> 몇 군데 찾아볼 수 있다.

한 견해를 제시하여 퇴계의 만년 정론과 부합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答李宏仲問目(퇴계서집성 2629쪽)에도 四端七情의 理發 氣發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27) 이 부분은 예천군 개포면 伊泗里 신상훈 선생(TEL:054-653-4313)의 자문과 대구 찬솔인쇄기획 辛吉煥 사장(053-253-1187)의 도움을 받았다.

28) 寧越辛氏玉溪公(辛達廷)派譜 36쪽에 “예천군 동쪽 瓮井山 戊坐에 있다” 라고 하였다.

29) 辛寶章의 형 辛寶重과 아들 雙槐軒 辛守 및 손자 玉溪 辛達廷도 모두 예천으로 移居하여 伊沙里에 살았고 산소도 모두 이곳에 있는데, 그렇다면 온 집안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셈이다. 寧越辛氏玉溪公派譜와 퇴계가 쓴 辛達廷의 「寧越辛公墓碣銘」(퇴계집 권47, 문집총간 30책 539쪽)이 있어서 참고할 수 있고, 辛守의 雙槐軒文集이 있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30) 퇴계서집성, 36쪽, 與辛弘祚(퇴계45세:1545년)의 ‘間關水路 連雨江漲’이란 표현이 낙동강 가에 살았음을 암시하고, 答申詣仲(퇴계70세:1570, 집성 3772)이란 편지의 “평書來 知高次坪及衙中皆無事 深喜” 라는 표현 및 그 주석을 통해 퇴계의 姊氏요 신흥조의 어머니인 李氏가 고차평 즉 고평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31) 與辛弘祚(퇴계45세:1545, 퇴계서집성 36쪽), 與辛弘祚(70세:1570, 3773쪽), 與辛弘祚(70세, 3773쪽)

32) 寄子舊(퇴계48세:1548, 퇴계서집성 94쪽), 與宋汝能兄弟(70세:1570, 3770쪽) 答申詣仲(70세:1570, 3772쪽)

## 2) 虎鳴面 地域의 門人

① 李愈(급문록117), 李熹(급문록118), 李應(급문록120) ; 醴泉郡虎鳴面 松谷里 沙谷<sup>33)</sup>

李愈(1521-1593)의 자는 子欽, 호는 梅村, 본관은 延安이다. 입학조 李堯의 長子로, 李堯이 경기도 용인에서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로 입학한 뒤 이 곳에 世居하였다.<sup>34)</sup> 도산급문제현록에 “일찍 진사에 급제하였고<sup>35)</sup>, 僉正(李熹) 引義(李應) 두 아우와 함께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4고을 수령을 역임함에 모두 治績이 있었다. 임진년(1592) 용궁고을 수령으로 있었는데, 공이 위급한 상황에 임무를 맡아 많은 적군을 목베고 사로잡았다. 또 예천에서 의병장이 되어 적을 토벌하다가 마침내 적의 칼날에 목숨을 거두니, 관찰사 金陞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음(盡誠爲國)을 들어 포상을 요청하였다” 라는 요지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직계 자손도 없고, 유적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李熹(1532~1592)의 자는 子修, 호는 栗里로, 梅村 李愈의 아우이다. 1532년에 태어나 퇴계 문하에 유학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에 “別科에 급제하여 校理를 지냈다.<sup>36)</sup> 행실과 情誼가 돈독하고 두터웠으며, 지조와 절개가 굳세고 확고하였다. 임란 때 奉常寺僉正으로 行在所로 달려갔는데, 朔寧에 이르러 갖가지 욕을 보면서도 굽히지 않다가 끝내 害를 입었다. 선생에 대한 제문이 있다.” 라

33) 이 부분은 延安李氏 別坐公派 宗孫 李義璇 선생(TEL:054-652-5313)의 자문을 받았다.

34) 李堯의 예천 입학 연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가 당시 서울에서 예천(현재의 문경군 化藏)에 落南해 있던 延福君 張末孫의 손서(둘째아들 張仲羽의 사위)가 되었고, 연북군의 산소를 예천군 호명면에 들인 뒤 張仲羽가 이곳에 세거하였으며, 李愈 李熹 李應 등이 모두 張仲羽의 외손자가 됨을 감안하면 이 역시 혼반관계가 작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5) 양양지에는 “선조15년(1582, 62세)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門蔭으로 戶曹佐郎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36) 양양지에는 “명종 16년(1561, 30세) 진사에 급제하였고, 선조7년(1574, 43세)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奉常寺僉正을 지냈다” 라고 하였다.

는 요지의 기록이 있다. 예천군지를 통해 金復一과 함께 용문의 能川書堂을 창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sup>37)</sup>, 퇴계가 보낸 “與李子修” “答李子修” 등 편지 5통이 있다.<sup>38)</sup> 다른 기록이나 문집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현재 유적도 없고, 직계 후손도 없다.

李應(1536~1597)의 자는 子期, 호는 訥軒으로, 梅村과 栗里의 아우이다. 일찍이 생원에 합격하였고, 도산에서 수업하였으며, 벼슬은 通禮院引儀를 지냈다. 만년에 안동 桃樹谷 浙江마을에 武陵亭을 짓고 諸賢들과 경학에 힘썼다고 하는데, 산소가 안동 임동면 마동에 있는 것으로 보아 혹 이 부근에 寓居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경상감사 芹谷 李觀徵이 세워준 沙谷祠란 사당이 원 거주지인 호명면 송곡동에 있고, 武陵亭도 이 마을로 移建하였으며<sup>39)</sup>, 현재 종손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호명면 인물로 불만하다. 문집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sup>40)</sup>, 퇴계와 왕래한 편지도 없으며, 다른 편지 가운데 그가 언급된 예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sup>41)</sup>

② 李宏(급문록248)과 李閔道(급문록259) ; 醴泉郡 虎鳴面 白松洞 행소리마을<sup>42)</sup>

李宏(1515~1573)의 자는 大容, 본관은 眞城이다. 퇴계의 중형 李河의 아들이며<sup>43)</sup>, 李完의 아우이다. 아버지 李河가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 咸陽朴氏 朴

37) 能川書堂의 건립 사실과 양양지에 “上金谷에 살았다” 라고 한 기사를 참고하면 그가 중년 이후에 용문면 상금곡에 이거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38) 주로 퇴계 만년에 보낸 與李子修(퇴계서집성 2643쪽) 與李子修(3168쪽) 答李子修(3170쪽) 答李子修( 3170쪽) 答李子修(3171쪽) 등이다.

39) 후손 李昇基가 1906년 현재 자리에 재건하였음. 건물 내에 경상감사 芹谷 李觀徵의 기문과 都事 柳道成의 중수기 등 다수의 현판이 있다.

40) 도산급문제현록에 “金鶴峯 黃海月 李蒙齋 등과 주고 받은 작품이 남아 있다. 학행과 문자에 대해서는 襄陽誌에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41) 答兒子竊(퇴계서집성 349쪽) 寄竊(351쪽) 答閔筮卿(1657쪽) 등이다.

42) 이 부분은 예천군 호명면 白松洞 遇巖 종손 李창로 선생(TEL:054-652-3366, 3213)의 자문과 그가 제공한 仙夢臺略誌에 근거하였다.

43) 퇴계 부친 李堉이 義城金氏 正郎 金漢哲의 딸과 春川朴氏 司正 朴縉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공은 前娶 金氏의 소생이다.

華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예천에 移住하면서 예천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李宏 당시에 安東金氏 部長 金遂良의 딸에게 장가를 든 뒤 다시 용문면 금당실에서 호명면 백송동으로 거처를 옮겼다.<sup>44)</sup> 蔭官으로 麒麟道察訪을 지냈고, 여기에서 遇巖 李閱道를 출생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에는 급문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1515년에 태어나 예천으로 옮겨 살았고, 관직은 察訪을 지냈다” 라는 소략한 기사만 수록되어 있다. 문집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퇴계가 그에게 보낸 편지 2통<sup>45)</sup>과 다른 편지 중 그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sup>46)</sup>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李閱道(1538-1591)의 字는 靜可, 호는 遇巖이고, 宏의 아들이면서 퇴계의 종손자이다. 도산급문제현록에 그의 거주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仙夢臺<sup>47)</sup>를 지었을 때 퇴계가 손수 편액을 쓰고 시를 지어 보냈다” 라는 정도의 간단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柳道獻이 지은 墓碣銘과 후손 李範教가 지은 遺事를 참고해 보면<sup>48)</sup> 그가 예천군 호명면 백송동 행소리마을에서 자랐던 사정과 대략적인 이력을 알 수 있다. 15세 전후에 이미 六經과 四書의 깊은 뜻을 깨우쳐 퇴계의 사랑을 받았고, 36세(1573) 때 아버지 상을 당하였으며, 39세(1576) 때 別試 丙科에 합격한 뒤 承文院正字 박사(44세) 사헌부감찰 예조정랑(45세) 고령군수(48세) 형조정랑(50세) 등을 역임한 뒤, 벼슬에서 물러나 仙夢臺에서 거주하다가 54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sup>49)</sup>

遺稿가 있었으나 1924년 藏書閣에 불이 나서 모두 소실되었다. 집안에서 편

44) 현재 안동김씨 祭宮이 이 곳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역시 처가 곳으로 이사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산소는 호명면 백송동 卵山에 있다.

45) 寄宏姪篤男(퇴계55세:1555. 퇴계서집성 513쪽), 答完宏宰(68세:1568. 3125쪽)

46) 上四兄(퇴계50세:1550. 퇴계서집성 172쪽), 答安道孫(61세:1561. 1301쪽), 答安道孫(61세:1561. 1301쪽)

47) 호명면 白松洞 행소리마을 乃城川邊에 있는 정자. 李閱道가 1563년 건립하였다. 퇴계 친필 仙夢臺란 글씨와 퇴계의 原韻, 遇巖李閱道 藥圃鄭琢 西厓柳成龍 鶴峯金誠一의 차운시가 題額되어 있다.

48) 眞城李氏 白松派宗中에서 간행한 仙夢臺略誌(보경문화사, 1994)에 수록되어 있다.

49) 묘소는 호명면 백송동 卵山 先塋에 있다.

찬한 仙夢臺略誌에 퇴계의 仙夢臺詩에 차운한 시 2편과 遺事 墓碣銘 및 退溪藥圃 西厓 鶴峯 漢陰 등이 선몽대를 두고 지은 시가 수록되어 있고<sup>50)</sup>, 퇴계가 그에게 보낸 편지 1통<sup>51)</sup>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 그를 언급한 것이 몇 통 있어서<sup>52)</sup> 참고할 수 있다.

③ 李宓(급문록251) ; 醴泉郡 虎鳴面 宗山洞 古山

李宓(1520~1545)의 자는 子昂이며, 퇴계의 네째 형 貞愍公 李滄의 여섯 아들 중 맏아들이다. 도산급문제현록 에는 그가 李滄의 아들이란 사실만 기록하고 거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서, 기존연구에서는 아버지 李滄가 예안에 살았음을 감안하여 예안 인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퇴계의 제문을 보면 “너는 襄陽(예천의 옛 이름)으로 장가들어 일찍이 거기서 살았다. 이제 너의 널을 양양으로 가지고 돌아가 장사지내려는 것이 네 처의 애절한 소원이다”라고 하여, 그가 일찍부터 처가 곳인 예천에 거주하였음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묘소가 예천군 호명면 사월에 있고, 후손이 없어서 조카 李味道<sup>53)</sup>와 松齋公의 세째 손자 李冲이 侍養을 위해 이곳 사월에 옮겨 살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예천 인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타고난 바탕이 빼어나고 아름다웠으며, 재주가 남보다 월등히 빼어났다. 선생에게서 학업을 배웠는데, 선생이 크게 칭찬하고 인정하여 시를 지어주어 격려하기를 “조카여 남보다 다른 남자가 되려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한 발치라도 양보해서는 안된다”<sup>54)</sup>라고 하였다. 을사년에(1545) 아버지를 따라 燕京에 갔는데, 黃鶴樓에 올라 시를 지었다. 돌아오다가 通州에 이르러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겨우 26세였다. 퇴계가 지은 제문이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어 있고,

50) 이 외에 양양지에 1609년 曹友仁이 지은 遺事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51) 與宋秀才閑道兼寄(퇴계70세;1570, 퇴계서집성 3768쪽)

52) 答金士純(퇴계62세;1562, 퇴계서집성 1475쪽), 答閔筮卿(63세;1563, 1657쪽), 答審姪(66세;1566, 2394쪽), 答李公幹(67세;1567, 2896쪽) 등 4통이다.

53) 李宓의 여섯째 동생 憲의 3형제 중 둘째이다.

54) 阿咸要作奇男子 莫爲他人讓一頭

여타 문집이나 기록은 전혀 없으며, 다만 퇴계가 아들 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에 관해 언급한 예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sup>55)</sup>

④ 李冲(급문록257)과 李揆道(급문록263) ; 醴泉郡 虎鳴面 宗山洞 古美 마을<sup>56)</sup>

李冲(생몰연 미상)의 자는 思舉, 호는 古庵이다. 퇴계의 숙부 松齋公의 셋째 孫子이고, 晚翠軒 李憑(1520-1591)의 아우이다. 처음 퇴계 조카 李宓이 예천군 호명면 내신(못뒤)으로 장가를 들어 처가 곳에 와 살았는데, 이 때 李宓이 자식이 없었으므로, 퇴계의 종손자인 李味道와 종질인 李冲이 종숙질간에 侍養 孫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다.

도산급문제현록에 “타고난 성품이 순직하고 진실하여 남들과 잘 사귀었다. 1536년에 형과 함께 선생에게 수학하였다” 라는 간단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고, 퇴계가 그에게 직접 보낸 편지 5통<sup>57)</sup>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중 그가 언급된 예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sup>58)</sup> 그러나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고, 문집도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다른 기록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sup>59)</sup> 세거지였던 호명면 종산동 고미마을에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靈泉庵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고, 후손들이 그를 위해 세운 古庵齋舍와 산소가 마을 서쪽 언덕에 있다.

李揆道(1557~?)는 李冲의 아들이고, 퇴계의 재종손이다. 도산급문제현록에 “자는 宜伯이고 李冲의 아들이다. 參議에 추증되었다” 라는 간단한 사실만 기록

55) 答篤(퇴계40세:1540. 집성7쪽), 答篤(41세:1541. 10쪽), 寄篤(42세:1542. 12쪽)

56) 이 부분은 호명면 宗山洞 古美마을 李홍식선생(054-655-5257)의 자문을 받았다.

57) 與冲姪(퇴계 65세:1565, 퇴계서집성 2386쪽), 答冲姪(67세:1567, 3005쪽), 與冲姪(68세:1568, 3327쪽) 與冲姪(68세:1568, 3327쪽) 答冲姪(69세:1569, 3629쪽)

58) 與李大成(퇴계52세:1552, 퇴계서집성 231쪽), 答安孝思(66세:1566, 2555쪽) 答琴士任(68세:1568, 3022쪽) 與朴子悅(68세:1568, 3087쪽)

59) 권오봉의 퇴계서집성 231쪽에 “초취부인 李克溫女에게서는 자식이 없고 재취부인 禮安金氏璘女에게서 3남2녀를 낳았다” 라는 주석이 있어서 보충이 된다.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연구에서는 예안 사람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충이 李宓의 侍養孫으로 예천군 호명면에 移居한 이래 이 지역에 세거하였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종산동 고미마을에 살고 있으므로 예천 인물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문집도 없고, 퇴계가 보낸 편지도 없으며, 다른 편지 가운데도 그를 언급한 예가 없어서 구체적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李令承(급문록 277) ; 醴泉郡 虎鳴面 黃池里 小望谷

李令承(1527~1605)의 자는 彦述, 호는 東巖이고, 관향은 永川이다. 孝節公 李賢輔의 손자이고<sup>60)</sup> 퇴계 숙부 松齋公의 孫壻이며, 李憑 李冲 형제와 처남 남매간이기도 하다.<sup>61)</sup> 외가와 처가가 있는 예천 호명에 살았는데, 寒棲庵에서 선생을 배알하고 학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도산급문제현록에 “타고난 성품이 남달라서 12세에 大學 治國章의 뜻을 물으니, 효절공이 기이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몇 칸의 집이 낙동강 가에 있어, 고요하게 수양하는 한가로움 가운데 원기가 솟아나네. 책상 위에 있는 서책은 진실로 즐거움이요, 부지런히 종일토록 학문 얘기 이어지네’ 라는 시가 남아 있다. 藥圃 鄭琢, 梅圃 宋福基와 道義交를 맺었으며, 心經 近思錄 등의 책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관직은 部將을 지냈으며, 79세이다” 라는 간단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다른 기록은 없고, 문집도 남아 있지 않으며, 퇴계가 보낸 편지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퇴계가 조카 李完에게 보낸 편지에 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다.<sup>62)</sup>

60) 농암 이현보의 6남1녀 중 제4남인 李仲樑이 예천 潘士洞의 딸 潘氏와 혼인하여 1남을 두었는데 그가 바로 이령승이다. 퇴계가 지은 농암 행장과 洪暹이 지은 농암 비명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량의 묘소가 호명면 황지리 소망실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대에 이 곳으로 移居한 것으로 생각된다.

61) 松齋公의 아들 李壽筈은 憑 潔 冲 3남과 2녀를 두었는데, 두 딸은 각각 李令承과 蔡雲慶에게 시집갔다. 퇴계가 지은 叔父戶曹參判府君墓碣識(퇴계집 권46)에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62) 答完姪(퇴계70세:1570, 퇴계서집성 3795쪽)

## 3) 龍門面 地域의 門人

## ① 權文海(금문록69) : 醴泉郡 龍門面 竹林里63)

權文海(1534~1591)의 자는 灑元, 호는 草澗, 본관은 예천이다. 선대부터 대대로 용문면 渚谷洞에 거주하다가 권문해의 고조부인 權幼孫(權孟孫의 아우) 당시에 金塘谷 柳田으로 移居하였으며, 조부 權五常이 강진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잠시 花峽 陶村에 거주하다가, 마침내 금당곡과 가까운 竹林에 새로 터를 잡아 현재까지 世居하고 있다.64)

권문해는 6세(중종34년)부터 가학을 수학하였고, 23세(명종11년) 때 처음 寒樓庵으로 퇴계를 배알하여 김성일 유성룡 김우옹과 동문수학하였다. 27세(명종15년) 때 別試에 합격한 뒤 權知成均館學諭로 벼슬을 시작하여 형조좌랑 공조정랑 영주군수 안동부사 공주목사 대구부사 사헌부집의 승정원동부승지 좌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91년(선조24년) 서울 집에서 세상을 떠난 뒤 예천군 용문면 용문산 언덕에 장례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鳳山書院에 배향되었다.

1798년(정조22) 7세손 權進洛이 그의 대표적 저술인 『大東韻府群玉』 20권을 처음으로 간행한 바 있고, 1812년 후손 權道相과 외손 黃龍漢이 각종 시문을 수습하여 다시 문집4권과 부록 1권 도합 5권 3책을 간행한 바 있다. 용문면에 종가와 草澗精舍가 현존하고 있고, 퇴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왕복한 書簡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 ② 金復一(금문록93) : 醴泉郡 龍門面 龜溪里

63) 이 부분은 草澗 중손 權榮基 선생(TEL:054-655-9225)의 자문을 받았다.

64) 예천권씨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에 세거해 온 예천 3대 土姓의 하나이다. 원래는 昕氏였는데, 昕氏의 시조인 昕迪臣의 6대손 昕暹 당시에 고려 忠穆王의 이름을 避諱하여 權씨로 바꾸었다. 세계는 대략 權暹-君保-誼, 익, 詳-詳의 아들 孟孫, 幼孫(대대로 살아오던 용문면 渚谷洞에서 金塘谷 柳田으로 移居)-幼孫의 아들 良, 善(李季甸의 사위)-善의 아들 五行, 五紀, 五福, 五倫, 五常(五常이 금당실 柳田에서 竹林洞으로 옮김)-五常 아들 祉, 祚,-祉의 아들 文海, 文淵, 望海-문해 아들 鼈-應鐸-進漢-顯相 으로 연결된다. 이런 사정이 예천권씨청년회에서 발간한 醴泉權氏考(대보사)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金復一(1541~1591)의 자는 季純, 호는 南嶽이며, 金璣의 5형제 중 막내이다. 안동 임하면 川前里 집에서 태어났으며, 도산금문체현록에도 “안동에 살았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천 용문면에 거주하는 예천권씨 參議 權祉의 딸에게 장가들어 역시 퇴계 문인인 權文海와 처남 남매간의 인연이 있었고, 定齋 柳致命이 지은 墓碣文에 “중년에 예천 琴谷에 살면서 학교를 세워 후배들을 가르치자 풍속이 유학으로 고상하게 되었다”<sup>65)</sup> 라고 하였으며, 금문록 뒷부분에도 “일찍이 예천에 살면서 여러 선비들에게 권유하여 鼎山書院을 세웠다” 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중년 이후 예천 용문 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분명한 듯하다.<sup>66)</sup> 그래서 그 자신과 前娶 예천권씨 및 後娶 안동권씨<sup>67)</sup>의 묘소가 모두 예천 堤洞에 있고, 현재도 용문면 구계리에 종가가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예천 인물로 보아야 마땅할 법하다.

김복일은 약관의 나이에 형 鶴峯 金誠一과 함께 퇴계를 뵈고 人心과 道心의 차이와 璇璣玉衡의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물리나서는 형제가 서로 익히고 토론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퇴계가 그 정성스러움과 독실함을 가상히 여겼다. 26세(1564) 때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30세(1570) 때 문과에 급제하여, 成均館學諭(1575) 典籍(1579) 刑曹佐郎(1580) 戶曹正郎(1583) 강원도 都事(1584) 울산군수(1587) 창원부사 경주교수 성균관사성, 풍기군수(1590) 등을 역임하였다. 선조24년 51세로 세상을 떠나니, 예천군 북쪽 용문산에 장사지냈고, 鳳山祠에 제향되었다.

9대손 金龍普가 편찬한 聯芳世稿에 시 8題, 서간 2통, 제문 1편, 묘갈 4편, 잡저 2편 및 부록을 함께 역은 南嶽先生逸稿 한 권이 있고, 퇴계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를 언급한 것이 1편 발견되며<sup>68)</sup>, 訥軒 李應과 함께 건

65) 義城金氏聯芳世稿, 南嶽先生逸稿, 附錄, 墓碣銘并序 “中歲居醴之琴谷 議立薰庠以訓後輩 俗以儒雅” 이것은 용문면 德進洞에 能川書堂을 세웠던 일을 두고 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66) 양양지에도 “進士 權五常(權祉의 부친)의 손녀에게 장가들어 안동에서 竹林里로 와서 살았다” 라고 하여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67) 후취 안동권씨는 현감 權審言의 딸이다

68) 答金景純(퇴계65세;1565, 퇴계서집성 2020쪽)에 김복일이 가끔 퇴계를 찾아와

립했다는 能川書堂은 남아 있지 않다.

③ 朴藝(금문록144) ; 醴泉郡 龍門面 上金谷里69)

朴藝(1535~1595)의 자는 彦秀, 호는 病柏堂, 본관은 咸陽이다. 朴從鱗의 셋째 아들로, 朴宗린의 縣監 文叔孫의 손서가 되어 상주군 함창읍 배목에서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로 입향한 후 줄곧 이 곳에 세거하였다.<sup>70)</sup> 권문해의 둘째 부인이 바로 박운의 질녀이다.

도산금문제현록에 “자품이 엄하고 곧세며 操行이 견고하고 확실하였다.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였다. 성품이 번잡하거나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집안에 있을 때는 효성이 돈독하고 지극했으며, 喪祭에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하니, 선생이 칭찬하였다. 후에 月川 趙穆에게서 卒業하였다. 이조참판에 贈職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이외에 그와 관련된 다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고, 문집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퇴계가 준 편지도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편지 가운데 그가 언급된 예도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용문면에 이들과 관련된 追遠齋<sup>71)</sup> 感露樓<sup>72)</sup> 永思亭<sup>73)</sup> 病栢堂儒契所<sup>74)</sup> 등의 유적이 현존한다.

강론하였음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

69) 이 부분은 病柏堂 종손 박나영 선생(054-654-4048)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 때 묘소에 墓碣이 현전하고 있다는 전문을 들었지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70) 朴從鱗은 朴忠佐의 후손이고, 병조참판 朴訥의 5형제 중 막내이다. 원래 그의 큰대사헌 朴洪鱗(1482-1535)이 權甲孫의 사위가 되어 처음 용문면 能內로 이사와서 살았는데, 그가 금당실로 이주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런 사실이 襄陽誌의 朴洪鱗 朴從鱗 조항에 기록되어 있다.

71) 1700년에 건조한 朴宗린의 講道之所로 용문면 상금곡동 금당실에 있다.

72) 朴宗린의 후손이 세운 정자로 용문면 院流洞 허리골에 있다. 현판은 淸風子 鄭允穆의 친필이다.

73) 朴宗린의 덕을 기리기 위해 1940년 후손이 건축. 용문면 상금곡동 북촌마을에 있다.

74) 朴藝를 기리기 위해 유림에서 1800년대에 건립. 용문면 상금곡리에 있다.

## ④ 李完(급문록247)과 李宗道(급문록258)

李完(1512~1596)의 자는 子固이고, 호는 企菴이다. 퇴계의 중형 李河의 맏아들이고, 퇴계의 조카이며, 용문에서 호명으로 移居한 李宏의 친형이다. 도산 급문제현록에는 그의 거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李河가 용문면 금당실 咸陽朴氏 朴華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예천으로 移住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sup>75)</sup>, 襄陽誌에 그가 “용문면 上金谷에 거주하였다” 라고 명기한 것으로 보아 용문면 인물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sup>76)</sup>

도산급문제현록에 “句讀를 익힐 때부터 선생에게서 학업을 배웠다.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고 익혔고, 문사와 필법이 화려하고 풍부하고 민첩하고 미묘하니, 선생이 일찍이 칭찬하기를 ‘家業을 이을 희망이 있는 사람은 完이다’ 라고 하고, 손수 性理書 한 질을 주어 격려하였다. 만년에 石橋에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선생이 손수 樂山亭이라고 명명하고 편액을 써 주었다. 사마시에 합격하고 永川敎官이 되어 선비들을 이끌고 유학을 진작시킨 공로가 있다. 月川 趙穆과 함께 伊山書院에서 聖學十圖를 강의하였고,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자, 磨谷祠에 배향하였다” 라는 요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집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른 기록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퇴계가 보낸 편지는 대단히 많은데<sup>77)</sup>, 이를 보면 퇴계의 여러 조카들 가운데서도 퇴계가 집안 일을 가

75) 李閑道가 지은 祖考宣務郎醴泉訓導府君墓碣識에 “公諱河—成化壬寅 生於禮安之溫溪里第 —公娶咸陽朴華之女 寓居襄陽郡北金塘里 晚爲其郡訓導” 라고 한 기록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76) 퇴계의 與完姪(퇴계38세:1538, 퇴계서집성 3쪽)에도 그의 용문 거주를 시사하는 기록이 있다.

77) 與完姪(퇴계38세:1538, 퇴계서집성 3쪽) 答完姪(42세:1542, 11쪽), 答完姪(43세:1543, 15쪽), 答完姪(43세:1543, 16쪽), 答完姪(43세:1543, 17쪽), 答完姪(47세:1547, 67쪽) 答完姪(48세:1548, 82쪽), 答完姪(48세:1548, 83쪽), 答完姪(49세:1549, 156쪽), 答完姪(49세:1549, 159쪽), 答完姪(49세:1549, 161쪽), 答完姪(54세:1554, 384쪽) 答完姪(56세:1556, 565쪽), 與完姪(64세:1564, 1840쪽), 答完姪(64세:1564, 1842쪽), 與完姪(64세:1564, 1842쪽), 答完姪(64세:1564, 1844쪽), 答完姪(64세:1564, 1844쪽) 與完姪(64:1564, 1845쪽), 答完姪(65세:1565, 2101쪽), 答完姪(65세:1565, 2101쪽), 答完姪(67세:1567, 2865쪽), 答完姪(67세:1567, 2866 쪽), 答完姪(67세:1567, 2866 쪽), 答完姪(67세:1567, 2867쪽), 答完姪(67세:1567, 2867쪽), 答完姪(68

장 자주 상의한 측근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李宗道(1535~1602)의 자는 士元이고 호는 芝澗이며, 李完의 아들이고, 퇴계의 종손자이다. 그 역시 도산급문제현록에 거주지가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아서 예안 인물로 파악해 왔는데, 아버지 李完 당시에 용문면 금당실로 移居한 사실이 확인되고, 襄陽誌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용문면 上金谷에 살았다” 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용문면 인물로 파악할 수 있다.

도산급문제현록에 “어린 나이에 선생께 나아가서 강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퇴계 사후 동문들과 易東書院에서 선생의 문집을 수집하였고,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임진왜란 때 義兵副將을 맡았다. 졸년은 68세이다” 라는 요지의 글과 시 1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는 문집도 남아 있지 않고, 퇴계와 왕래한 편지도 없으며, 다른 편지 가운데서도 언급된 예를 찾기 어렵다

### 3) 其他 地域의 門人

#### ① 李中立(급문록65) : 醴泉郡 知保面 大竹里<sup>78)</sup>

李中立(1533~1571)의 자는 强仲, 호는 龜溪, 본관은 慶州이다.<sup>79)</sup> 齋亭 李達衷의 10대손으로, 조부 副護軍 李善童이 서울에서 龍宮縣 大竹里(현 예천군 지보면)로 와 살면서 이 지역에 세거하게 되었다.<sup>80)</sup> 禦侮將軍 李茲와 醴泉權氏 사이

세:1568, 3123쪽), 答完姪(68세:1568, 3124쪽), 答完姪(68세:1568, 3125쪽), 答完姪(68세:1568, 3125쪽), 答完姪(69세:1569, 3499쪽), 答完姪(69세:1569, 3510쪽) 與完姪(69세:1569, 3510쪽), 答完姪(70세:1570, 3794쪽), 答完姪(70세:1570, 3795쪽), 答完姪(70세:1570, 3796쪽), 答完姪(70:1570, 4106쪽) 등 37통의 편지가 있다.

78) 이 부분은 李中立의 종손 삼촌 李職선생(TEL:011-732-2448)의 자문과 그에게서 제공받은 龜溪先生文集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龍宮 大竹里는 현재의 지보면으로, 퇴계의 3兄 忠順衛 李滸가 외손봉사 때문에 移居하던 곳이기도 하다(권오봉, 퇴계서집성 15쪽 주석 참고)

79) 도산급문제현록에는 자를 剛仲 본관은 月城이라고 하였다.

80) 金應祖가 지은 그의 동생 省吾堂(혹은 櫟峯) 李介立의 行狀에는 그의 증조부 大護軍 李洵 당시에 이곳으로 落南하였다고 하였고, 이 글이 양양지에도 실려 있다. 문중에 省吾堂集이 있다.

의 장남으로 태어나<sup>81)</sup> 용궁에 살다가, 나중에 안동 一直縣 龜尾邨에 寓居하였다.

서울에서 一直縣에 내려와 살던 涵齋 徐嶸(1537-1559)와 함께 퇴계에게 수 업하였고, 1558년(26세) 進士試에 장원하였으며, 이후 성균관에서 掌議로 약 10여년간 활동하였다. 1568년(36세) 부친상을 당하여 내려온 뒤 상을 마치고 병을 얻어 1571년 39세로 세상을 떠났다. 용궁 대죽리 可柯山(현재 예천군 지 보면 암천) 선영에 안장하였다.

1952년 13대손 李宰東이 詩 38편, 편지 1편, 잡저 6편, 제문 1편, 誄文 1 편과 각종 전적에 기록되어 있는 事蹟을 채집하여 『龜溪先生文集』 2권 1책을 간행한 바 있고, 호명면 황지동 논실에 그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龜溪 亭<sup>82)</sup>이 있다. 1564년 禹性傳과 함께 퇴계를 방문하여 유숙하였다는 간접적 기록을 퇴계 편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sup>83)</sup>

## ② 全纘(급문록179) : 醴泉郡 龍宮面 竺山洞<sup>84)</sup>

全纘(1546~1612)의 자는 景先, 호는 四友堂, 본관은 竺山인데, 대대로 용 궁에 살았다.<sup>85)</sup> 도산급문제현록에 “명종1년(1546) 태어나 일찍이 시로 세상에

81) 3형제중 장남이며, 두 동생은 成立, 季立이다. 이 중 省吾堂 李季立이 많은 글을 남겼다. 이개립은 鶴峯의 문인으로, 형 李中立이 세상을 떠난 뒤 喪期를 마칠 때까지 과거를 보지 않았고, 조카 남매들 혼사를 모두 맡아서 하였다. 외삼촌 權國老를 봉양하기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용문면 下金谷에 와서도 살았고, 甘泉面 眞藏(현재의 진평)에도 寓居하였으며, 80세로 세상을 떠난 뒤 영주군 石宗山(장수면)에 장사를 지냈다. 양양지에 金應祖가 지은 行狀이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82) 정면3칸 특면1.5칸의 정자로, 1962년 그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83) 퇴계가 西厓 부친 柳仲郢에게 보낸 「答柳希范」이란 편지에 “適禹上舍性傳與李上舍 中立來訪留宿”(퇴계서집성, 1826쪽)이란 기록이 있다.

84) 이 부분은 예천 용궁면 전제도 선생(TEL:054-653-6061)의 자문을 받았다.

85) 全纘에 世系는 문헌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 龍宮縣 조항에 용궁의 원래 이름이 竺山이고, 전찬이 퇴계에게서 받아 題目을 붙였다는 淸遠亭이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신인 全元發의 舊居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에 대대로 世居해 온 全元發의 후손일 것으로 판단된다. 淸遠亭은 省火川 東岸에 있는데, 石壁 상에 篆書로 淸遠亭이란 세 글자를 새겨놓았다(여지승람). 菊坡 全元發(?-세종3년:1421)은 典法摠郎 忠敬의 증손, 判圖摠郎 大年의 손, 鷹揚軍 珽의 아들이다. 고려말 원나라 문과에 장원급제

알려졌다. 선생의 문하에 올라 心經 近思錄 등의 책을 배웠으며, 親炙하기를 열심히 하니, 선생께서 항상 칭찬하기를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일하기를 즐기는 것이 천성에서 나왔다' 라고 하였다. 淸遠亭에 제목을 붙인 것이나 暎蓮堂의 화답한 시편과 편역의 글씨는 모두 퇴계에게서 받은 것이다. 학문과 행실로써 참봉에 薦授되었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공조정랑에 추증되었으며, 67세에 세상을 떠났다" 라고 하였고, 暎蓮堂韻 2편을 급문록에 동시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문집도 없고, 유적도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주손도 없다. 퇴계가 보낸 편지도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퇴계와 시를 주고받았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sup>86)</sup> 발견될 따름이다.

③ 金八元(급문록42) : 醴泉郡 甘泉面 美石2洞<sup>87)</sup>

金八元(1524~1569)의 자는 舜舉, 호는 芝山, 본관은 강릉이다. 8代祖 令同正 金仁轍이 안동에 입향한 이래 안동에 世居하였고, 先塋도 안동 暎湖樓 근처에 있으며, 도산급문제현록에도 그가 '안동에 살았다'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喪配하고<sup>88)</sup> 예천군 감천면 미석2동 안동권씨에게 다시 장가든 뒤 이곳으로 移居한 듯한데, 이 때문에 조부 내외와 부모의 산소가 모두 감천면 미석동에 있고, 그가 詩想을 떠올리던 讀書臺 유적이 현재까지 이곳에 남아 있으며, 만년에 계모 봉양을 위해 용궁현감으로 부임한 뒤 이곳에 常住하기도 하였다. 감천면 지역은 안동의 屬縣이었으나 현재는 예천군 지역이므로 예천 인물로 취급할만하다.

김팔원은 태어난 지 7개월만에 생모가 세상을 떠나 외가인 안동 와룡면 주동 永春李氏 李自芸의 집에서 살다가 백운동서원으로 주세봉을 찾아 가 수업하였

---

하여 병부상서 태사사를 지냈고, 조선 태조 때 淸山府院君에 봉해졌다. 서예에 뛰어났고, 용궁 蘇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아들 司僕判事 儻이 있고, 손자 強 謹 敬이 모두 장원급제하여 淸宦으로 현달하였다.

86) 答申詣仲(暎, 퇴계70세:1570, 퇴계서집성 3772) "奎君亭韻 曾亦見之 老病無興 尙未應副 恨恨"

87) 이 부분은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에 거주하는 芝山 종손 金東華 선생(054-653-0625)의 자문과 그가 제공한 國譯芝山先生文集에 힘입은 것이다.

88) 처음 안동시 와룡면 주하동(두루)의 영춘이씨에게 장가를 들어 김팔원을 낳았다.



고, 다시 퇴계가 풍기군수로 왔을 때 문하에 올라 왕래하면서 의심나는 것을 질문하였으며, 月川 柏潭 같은 이들과 道義로 서로 이끌었다. 32세(1555) 때 생원 진사 시험에 다 합격하였고, 같은 해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35세(1558) 때 아버지 상을 만났다. 39세(1562) 때 學錄으로 벼슬을 시작하여 博士(40세) 典籍(40세) 예조좌랑(41세) 등을 역임하였고, 42세(1565) 때 龍宮縣監으로 내려온 뒤, 계모 상에 정성을 다하다가 몸을 상하여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46세로 세상을 떠났다.

1776년경 후손들이 글을 모아 문집 3책을 엮었으나 8대손 金道復이 蔡濟恭에게 墓誌銘을 받으러 가져갔다가 상실하였다.<sup>89)</sup> 1826년 金宗漢 등이 남은 글을 다시 수습하여 2권으로 간행하였고, 1995년 문중에서 이 책을 번역 영인하여 배포한 바 있다. 현재 문집 속에는 賦 5편, 시 110題, 서간 2통, 贊 識 說 祭文 각1편, 孤山 李惟禕이 지은 行狀, 李玄逸이 지은 墓碣銘, 蔡濟恭이 지은 墓誌銘 및 師友들이 남긴 약간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퇴계가 보낸 편지 2통이 있고<sup>90)</sup>, 예천군 보문면 독양동에 그를 제향하기 위해 건립한 芝山別廟가 있다.

④ 辛乃玉(급문록213) ; 醴泉郡 甘泉面 美石洞<sup>91)</sup>

辛乃玉(생몰연 미상)의 자는 啓而, 호는 一竹齋 養正齋 遜庵, 본관은 寧越이다. 도산급문제현록에 그의 출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權頊淵이 지은 묘갈명에 “퇴계가 巖棲軒에서 강론할 때 及門하였으며, 마침내 안동 洛陽村(예천군 감천면 미석동)으로 온 식구를 거느리고 이사하였다”<sup>92)</sup> 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손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洛陽精舍<sup>93)</sup> 묘소<sup>94)</sup>

89) 金是瓚, 芝山先生文集序, “平日所著述 不爲不多 後人零替甚 僅僅收拾以藏棄者爲三冊 五十年前 八世孫道復 齋往受誌于樊巖蔡相國 仍不返也 嚮之三冊 不知飄落何處”

90) 答金舜舉(퇴계62세;1562. 퇴계서집성 1476쪽), 答金舜舉(63세;1563. 1638)

91) 이부분은 예천군 감천면 신보성 선생(054-652-7038)의 자문을 받았다.

92) 權頊淵, 墓碣銘并序, “退陶李子之講道巖棲也 一竹齋先生 心誠若水火之於燥濕 千里負笈 既又拔宅從之于永嘉之洛陽村”

93) 洛陽精舍는 一竹辛乃玉 秋厓辛弘立 竹厓辛義立 등 3인의 유덕을 기리기 위해 1982년 감천면 美石洞 568번지에 건립한 정면3칸 측면1.5칸 목조 팔작지붕의 건물이다.

94) 신내옥의 묘소는 예천군 북쪽 鵝院 卯坐 언덕에 있다.

등이 모두 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예천 출신이 분명하다.

그는 고려 중엽 貞懿公 辛鏡의 후손으로, 충숙왕 때 辛蘊이 영월 땅에 봉해지면서 관향이 되었다. 증조부는 訓導 辛自順이고, 조부는 司直 辛世釜이며, 아버지는 兪知 辛仲坤이다. 어머니는 光州金氏이고, 부인 英陽南氏는 忠順衛 南龜壽의 딸이다. 사마시에 합격하고 對策이 급제답안으로 뽑혔는데, 어떤 재상이 거부하여 낙제하였다. 그 뒤 다시는 응시하지 않았으며, 文緯世 尹剛中과 鳴玉臺에서 노닐었다. 71세로 세상을 떠난 뒤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12대손 辛柱鳳과 13대손 辛承禧가 그의 시문 10여편과 松巖이 창화한 시 140편 및 鶴峯의 절구 1수를 찾아 遺事1권을 엮었다 하나 확인하지 못하였다. 퇴계가 준 편지도 없고, 다른 사람의 편지 가운데도 그를 언급한 예를 발견할 수 없으며, 다만 權頊淵이 지은 묘갈명이 있어서<sup>95)</sup> 그와 관련된 대강의 사정을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 ⑤ 宋遺慶 宋汝能 宋汝沃

宋遺慶과 그의 두 아들 宋汝能 宋汝沃 3부자는 도산급문제현록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권오봉이 도산제자편람 후편에 퇴계의 급문제자로 새롭게 발굴하여 수록한 뒤, 송유경에 대해서는 “퇴계선생의 家人(姪壻)이며 處身을 배웠다”라고 하였고, 宋汝能에 대해서는 “예천에 살았고, 教育用 紙筆墨 받고 ‘疑’의 製述을 배웠다”라고 하였으며, 宋汝沃에 대해서는 “예천에 살았고, 형 汝能과 함께 배웠다”라고 하였다.

이런 언급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遇巖 李閱道가 지은 조부 李河의 墓碣銘에 “李河의 후손은 3남 3녀이다. 完은 進士이고, 宏은 察訪이고, 宥은 儒士이다. 맏딸은 참봉 權胤下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宋遺慶에게 시집갔으며, 셋째 딸은 權義叔에게 시집갔다”<sup>96)</sup>라고 하여 송유경이 퇴계의

95) 퇴계학연구, 제18집, 국제퇴계학회 경상북도지부, 349-355쪽

96) 李閱道, 祖考宣務郎體泉訓導府君墓碣識, “後有三男三女 曰完進士 曰宏察訪 曰宥儒士 女長適參奉權胤下 次宋遺慶 次權義叔”

중형 李河의 둘째 사위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의 60대 이후 편지 가운데 이들 3부자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통 남아 있는 것<sup>97)</sup>으로 보아 퇴계의 만년 시절에 급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몰연대와 거주지 및 급문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 4. 門人集團의 主要 特徵

앞에서는 검토한 예천지역 퇴계 문인 약 25명의 간단한 이력과 급문 사실 및 이들이 남긴 글의 개략적 상황을 총괄적으로 종합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1) 土着民보다 移住民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우선 예천에 대대로 世居해 온 土着民<sup>98)</sup>보다 조부나 부친 혹은 자기 당대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移住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전체 문인 25인 중 權文海는 예천권씨 權暹의 후손으로 고려시대부터 줄곧 예천군 용문면 지역에 世居하였고, 全纘도 竺山府院君 全元發의 후손으로 고려시대부터 용궁면 축산 지역에 세거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왔는데, 그 실상을 간단히 도표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퇴계가 송유경에게 보낸 편지는 答宋遺慶(퇴계62세;1562, 퇴계서집성 1486쪽), 答宋遺慶(64세;1564, 1830쪽) 答宋遺慶(67세;1567, 2840쪽) 등이 있고, 송여능에게 보낸 편지는 答宋汝能(70세;1570, 3769쪽), 答宋汝能(70세;1570, 3769쪽) 등이 있으며, 송여능과 송여옥 형제에게 같이 보낸 편지로 答宋汝能兄弟(70세;1570, 3770쪽) 答宋汝能兄弟(70세;1570, 3770쪽) 등이 있다.

98) 동국여지승람 예천군 조항을 보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성으로 林氏 尹氏 權氏 許氏 李氏 黃氏 등을 소개하였고, 대표적 인물로 고려시대에는 예천임씨의 林民庇 林宗庇 林椿 林支漢 林惟正을 소개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예천권씨 權孟孫과 예천윤씨 尹祥 및 趙庸을 소개하였다. 그러니까 예천 지역에서는 林氏 尹氏 權氏가 3대 土姓이라고 할만하다.

표3: 移住門人の 時期別 移住 現況

世居	權文海 全纘
祖父 移居	辛弘祚 李宗道 李閱道 李中立
父親 移居	李愈, 李焘 李應 李宏 李揆道 朴蠶 李完 李令承
當代 移居	李冲 李宓 宋福基 張謹 鄭琢 金復一 金八元 辛乃玉

위의 표를 보면 이 지역 퇴계문인 전체 25인 중, 權文海와 全纘 및 아직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송유경 3父子를 제외한, 나머지 20인이 모두 조부나 부친 혹은 자기 당대에 다른 지역에서 예천으로 이주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 혹은 자기 당대에 이곳으로 와서 그 당시로서는 아직 뿌리를 내리기 이전의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예천 주변 지역에서 퇴계의 친인척들이 많이 이주하였다.

예천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면면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들이 대부분 원래 예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근 지방 즉 예안 안동 영주 함창 등지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梅村 李愈 3형제와 李中立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주하였고, 辛乃玉은 영월에서 이주하였으며, 張謹은 湖西지역에서 영주를 거쳐 예천으로 이주하는 등 비교적 먼 곳에서 온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모두 예안 안동 영주 함창 등지에서 이주하였다.

표4: 移住門人の 地域別 移住 現況 및 關係

예안지역에서 移居	李完(퇴계조카) 李宗道(퇴계종손자) 李宏(퇴계조카) 李闕道(퇴계종손자) 李宓(퇴계조카) 李冲(퇴계종조카) 李揆道(퇴계재종손) 李令承(퇴계의 종질서) *8명
안동지역에서 移居	鄭瑑(안동-예천읍) 金復一(안동-용문) 金八元(안동-감천) *3명
영주·함창서 移居	辛弘祚(퇴계생질, 함창-예천읍) 宋福基(퇴계생질의 胥, 영주-예천읍) 朴薰(함창-용문) 張謹(湖西-영주-예천읍) *4명
서울·경기서 移居	李愈, 李熹 李應(용인-호명 사곡) 李中立(서울-지보) *4명
기타지역에서 移居	辛乃玉(영월-감천) *1명

특히 예안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퇴계의 친인척이었다. 李完과 李宗道는 퇴계의 둘째 형 李河의 아들과 손자로 李河를 따라 예천 용문에 와 살았고, 李宏과 李闕道 역시 李河의 아들과 손자로 李河를 따라 예천 용문에 와 살다가 호명면 백송동으로 移居하였다. 李宓은 퇴계의 넷째형 李瀾의 맏아들로 처가 곳을 따라 호명면에 와 살았고, 李冲은 퇴계의 숙부 李堦의 셋째손자로 퇴계 종손자인 李味道와 함께 李宓의 侍養孫으로 호명면에 와 살았으며, 李揆道는 李冲의 아들이고 퇴계의 재종손이다. 李令承은 孝節公 李賢輔의 손자로, 퇴계 숙부 松齋公 李堦의 孫壻이고 李冲과는 처남 남매간이기도 하다.

이 이외에 함창에서 이주한 辛弘祚는 퇴계의 생질이고, 宋福基는 신흥조의 무남독녀에게 장가들어 영주에서 이주하였으며, 이주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宋遺慶은 퇴계의 姪壻였고, 宋汝能과 宋汝沃은 바로 그 친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안에서 移居한 퇴계문인 8명은 조카3명, 질서1명, 종조카1명, 종질서1명, 질서 사위1명, 종손자2명, 재종손자1명 등 모두 퇴계와 대단히 가까운 친인척이었고, 함창에서 이주한 신흥조와 영주에서 이주한 송복기 및 예천에 거주한 송유경 3부자도 모두 생질이거나 생질의 사위 혹은 자식으로 가까운 인척인 셈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지보면 大竹里로 落南한 李中立의 경우, 그 곳이 바로 퇴계의 셋째형 李瀾가 진성이씨 大竹派 入鄉祖가 되어 세거한 곳이고, 외가가 바로 퇴계의 둘째형 李河가 거주하던 용문이었음을 감안하면,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퇴계 집안과 일정한 연비관계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있다.

3) 移居에 婚脈이 크게 작용하였고, 지역적으로 호명 용문 예천읍에 편중되었다.

예천지역 퇴계문인 25인 중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실이 분명한 20명의 고향과 혼맥 및 실재 거주지를 검토해 보면 이들의 移居에 혼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지역적으로 호명면 용문면 예천읍 지역에 특히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up>99)</sup>

표5: 移住門人의 婚脈과 居住地 現況

	이름	고향	처(외)가 관계	거주지
퇴계문인	李完	예안	(외)醴泉 龍門面 金塘谷 咸陽朴氏 朴華의 딸	醴泉郡 龍門面 金塘谷
	李宗道	예안	李完 아들, 아버지 따라 龍門에 거주	醴泉郡 龍門面 金塘谷
	李宏	예안	(외)醴泉 龍門面 金塘谷 咸陽朴氏 朴華의 딸 (처)醴泉 虎鳴面 白松洞(?) 安東金氏 金遂良의 딸	醴泉郡 虎鳴面 白松洞
	李閔道	예안	李宏 아들, 아버지 따라 虎鳴에 거주	醴泉郡 虎鳴面 白松洞
	李宓	예안	(처)醴泉 虎鳴面 沙月	醴泉郡 虎鳴面 松谷洞
	李冲	예안	李宓의 侍養孫으로 虎鳴面 沙月로 移住	醴泉郡 虎鳴面 宗山洞
	李揆道	예안	李冲의 아들, 아버지 따라 虎鳴에 거주	醴泉郡 虎鳴面 宗山洞
	李令承	예안	(처)醴泉 虎鳴面 沙月, 李冲의 매부 (외)醴泉 醴泉邑 高坪洞, 潘士洞의 딸	醴泉郡 虎鳴面 黃池洞
	辛弘祚	함창	(외)어머니(퇴계의 누님)가 醴泉邑 高坪洞居住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
	宋福基	영주	(처)醴泉郡 醴泉邑 高坪洞 寧越辛氏 辛弘祚의 딸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
인척	金八元	안동	(외)繼母가 醴泉郡 甘泉面 美石2洞 安동권씨의 딸	醴泉郡 甘泉面 美石洞
	鄭瑑	안동	(처)醴泉郡 醴泉邑 高坪洞 巨濟潘氏 潘冲의 딸	醴泉郡 醴泉邑 高坪洞
관계불분명	李中立	서울	(외)醴泉郡 龍門面 醴泉權氏 權禮의 딸 (처)英陽南氏 延(1번)의 딸	醴泉郡 知保面 大竹里
	金復一	안동	(처)醴泉郡 龍門面 竹林洞 權祉의 딸	醴泉郡 龍門面 龜溪洞
	朴藝	함창	(외)醴泉郡 龍門面 上金谷洞 文叔孫의 손녀	醴泉郡 龍門面 上金谷
	李愈	용인	(외)醴泉郡 虎鳴面 張仲羽(張末孫의 第2子) 딸	醴泉郡 虎鳴面 松谷里
	李熹	용인	(외)醴泉郡 虎鳴面 張仲羽(張末孫의 第2子) 딸	醴泉郡 虎鳴面 松谷里
	李應	용인	(외)醴泉郡 虎鳴面 張仲羽(張末孫의 第2子) 딸	醴泉郡 虎鳴面 松谷里
	張謹	호서	불분명	醴泉郡 醴泉邑 東本洞
	辛乃沃	영월	(처)英陽南氏 南龜壽의 딸	醴泉郡 甘川面 美石洞

99) 퇴계와의 친인척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도산급문제현록의 수록 순서를 따라 정리하였고, 처가 혹은 외가의 주소가 불분명한 장근과 신내옥은 제일 뒤로 돌렸다.

위의 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천지역으로 이주한 퇴계문인 20명 중 張謹과 辛乃玉을 제외한 18명의 처가 혹은 외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18명 중 李中立만 실제 거주지가 혼인 관계상의 연고지와 관련이 없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이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李完은 아버지 李河가 용문으로 장가들어 자신의 아들 李宗道와 함께 용문에 살게 되었고, 李宏 역시 아버지 李河의 처가 곳인 용문에 살다가 호명으로 장가들어 그 아들 李闕道와 함께 호명에 정착하였으며, 李宓이 호명으로 장가들어 그 곳에 정착하자 그의 제종 동생인 李冲이 侍養孫으로 이 곳에 따라와 그 아들 李揆道와 함께 살게 되었다. 기타 鄭琢 金復一 李令承 宋福基 등은 모두 당대에 처가 곳을 따라 정착하였고, 金八元 辛弘祚 朴蠶 李愈 李熹 李應 등은 아버지가 처가 지방에 정착함에 따라 외가 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이주한 장소가 모두 호명면 용문면 예천읍 지역이란 점도 흥미롭다. 퇴계의 친족 중 李宏 李闕道 李宓 李冲 李揆道는 모두 호명면에, 李完과 李宗道는 용문면에 정착하였고, 인척 중 李令承은 호명면에, 辛弘祚 宋福基는 예천읍에 정착하였다. 기타 인물 중에서도 李愈 李熹 李應은 호명면에, 金復一과 朴蠶은 용문면에, 鄭琢과 張謹은 예천읍에 정착하였고, 이 지역을 벗어난 인물은 감천면에 정착한 金八元과 辛乃沃, 지보면에 정착한 李中立 등 3명뿐이다. 그러니까 전체 移住門人 20명 중 호명면이 10명, 용문면이 4명, 예천읍이 3명 도합 17명이 예천의 12개 행정구역 중 이 3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했던 셈이다. 이들이 왜 호명면 용문면 및 예천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주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호명면 지역은 낙동강 乃成川 연안으로 넓은 들과 강변의 경관이 좋고, 鄭琢 辛弘祚 宋福基 등이 거주했던 고평동도 예천읍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이 호명면과 지리적 유사성이 큰 곳이며, 강을 건너면 바로 안동 예안으로 통할 수 있는 곳이다. 용문면은 權文海家の 근거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10勝地 중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곳이면서 동시에 영주 예안과의 교통이 편리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주에는 혼인관계와 함께 지정학적 여건과 예안 주변과의 교통 사정 등이 동시에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4) 퇴계학과 관련한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사람이 거의 없다.

예천 지역의 퇴계 문인이 수적으로는 예안 안동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학문적 업적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우선 이들이 남긴 문집의 규모와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현황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6: 醴泉地域 退溪門人の 文集-著述 現況

문집-저서 5권 이상	權文海(草澗先生文集5권, 大東韻府群玉20권), 鄭琢(藥圃集11권)
문집-저서 4권 이하	金八元(芝山集2권) 李中立(龜溪集2권) 金復一(南嶽先生逸稿1권)
문집-저서 전혀 없음	여타 20명 모두가 여기에 해당함

예천지역 퇴계 문인 25명 중 문집을 1권이라도 남긴 사람은 권문해 정탁 김팔원 이증립 김복일 등 5명에 불과하다. 이 중 김팔원 이증립 김복일 등 세 사람의 문집은 모두 수백년 뒤 후손들이 해당 인물의 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 가운데 관련되는 것을 두루 수집하여 편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가 한 두 권에 불과하고, 또 그 속에서 퇴계의 학문적 이론과 깊이 연계된 어떤 학술적인 글도 발견하기 어려우며, 약간의 시와 서간문 제문 묘갈 행장 및 관련 事跡의 보충적 채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100)</sup>

100) 김복일의 南嶽先生逸稿1권은 9대손 金龍普가 편찬한 聯芳世稿에 들어 있는데, 詩8題, 서간 2통, 제문1편, 묘갈 4편, 잡저 2편 및 부록이 있다. 김팔원의 芝山先生文集2권은 1776년 3책으로 편찬했다 하나 바로 상실하였고, 1826년 金宗漢 등이 다시 수습하여 2권으로 간행하였는데, 賦5편 시110題 서간2통 贊 識 說 祭文 각1편 行狀 墓碣銘 墓誌銘 및 師友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증립의 龜溪先生文集2권은 1952년 13대손 李宰東이 처음 간행하였는데, 詩38편 서간1통 잡저6편 제문1편 誄文1편과 다른 책에 있는 관련 事蹟이 채록되었다.



이런 사정은 퇴계와의 往復書翰을 조사해 볼 때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퇴계의 왕복서한은 그가 문인들과 학문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직접 자료이며, 퇴계학을 학문적으로 계승한 중요 문인들의 경우 이런 서한을 다수 남기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鄭惟一(176), 趙穆(150) 奇大升(95) 黃俊良(88) 등은 퇴계에게서 100통 내외의 서한을 받았고, 李德弘(48) 琴蘭秀(42) 禹性傳(39) 金富弼(38) 柳雲龍(32) 權好文(30) 金誠一(29) 등도 모두 30에서 50통 전후의 서한을 받은 바 있다.<sup>101)</sup> 그러나 예천지역 퇴계 문인 가운데는 퇴계의 편지를 아예 1통도 받지 못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다.

표7: 醴泉地域 退溪門人の 往復書翰 現況<sup>102)</sup>

全無	간접언급도 없음	李愈 李揆道 權文海 朴蕓 辛乃沃 李宗道
	간접언급은 있음	李令承1 金復一1 李中立1 全纘1 張謹2 李應3 李宓3
往復書翰 1-5통 정도		李闕道1(언4) 宋福基1(언4) 李宏2(언3) 金八元2 宋汝玉2 辛弘祚 3 宋遺慶3 宋汝能4
往復書翰 5통 이상		李熹5 李冲5(언4) 鄭琢16(언2) 李完37

위의 표에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천지역 퇴계 문인 가운데는 아예 단 한차례도 서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25명 중 13명이나 되고, 받은 사람 가운데 5통 미만은 받은 이가 대부분이며, 5통 이상 받은 사람은 李熹 李冲 鄭琢 李完 등 4명에 불과하다. 이 중 鄭琢과 李完은 비교적 많은 서한을 받아서 주목할

101) 權五鳳, 退溪書集成1책, 陶山弟子便覽, 403-429쪽 참고. 물론 서한의 왕복 회수가 학문적 계승의 충실도와 정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다. 퇴계의 유력한 문인 가운데 유성룡은 4통, 鄭述는 6통을 받는데 그친 반면 퇴계의 만손자 李安道는 119통을 받았던 예가 그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한의 왕복 회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102) 이름 뒤에 표기한 숫자는 퇴계에게서 받은 서한의 수를 가리키고, (언)으로 표기한 것은 다른 사람 편지 가운데 간략하게 이름이나 관련 사실이 언급된 회수를 가리킨다.

만한데, 그 내용이 진지한 학문적 토론 보다 일상적 안부나 부탁이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조카 이완에게 보낸 편지는 집안 일에 대한 심부름성의 부탁과 안부가 주를 이루었고, 정탁에게 보낸 편지도 관리로서 경계할 사항에 대한 충고, 선물에 대한 감사와 안부, 기타 시를 지어 주거나 토론한 것들뿐이다.<sup>103)</sup>

이처럼 예천 지역 퇴계 문인은 수적으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학문적 성과에 있어서는 그만한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문인의 수는 25명이나 되지만, 문집이나 저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20명이고, 퇴계와의 왕복서한조차 한 편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었으며, 문집이나 서한을 남긴 경우에도 대체로 그 규모가 빈약하고 내용이 퇴계의 철학적 탐색과는 거리가 먼 일상적인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 5. 結論-後代的 繼承 問題

앞에서 본고는 예천이 퇴계 문인의 전국적 분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과 及 門弟子의 구체적 실상 및 그 집단적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천의 퇴계 제자가 적어도 외형상의 수에 있어서는 예안 안동 지역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역 보다 비중이 크고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지역이 외형상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학문적 성과가 적음을 지적하였다. 이 지역의 퇴계문인은 오래 동안 지역에 世居해 온 土着民 보다 이웃 예안 안동 등지에서 주로 婚姻關係를 매개로 移居해 온 移住民, 특히 퇴계의 친인척이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었고, 문집이

103) 答鄭子精(집성1701) 答鄭子精(집성2262) 答鄭子精(집성2656) 答鄭子精(집성1703) 與鄭子精(집성3569) 答鄭子精(집성3569) 答鄭子精(집성3896) 등은 관리로서의 출처나 경계할 사항에 대한 충고가 주내용이고, 答鄭子精(집성1702) 答鄭子精(집성1942) 與鄭子精(집성2654) 答鄭子精(집성2655) 答鄭子精(집성2656) 答鄭子精(집성3889) 등은 선물에 대한 감사 표시나 안부 방문 문제가 주 내용이며, 答鄭子精(집성1942) 與鄭子精(집성2652) 答鄭子精(집성2657) 등은 화답시를 지어주거나 작시법을 토론한 것이다.

나 저술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왕복서한 조차 한 편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이런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제자는 문집 11권과 왕복서한 16통을 남긴 鄭琢, 문집 5권과 大東韻府群玉20권을 남긴 權文海, 왕복서한 37통을 남긴 李完 등이었다. 그러나 이 세 사람도 퇴계학의 학문적 전개관 관점에서는 모두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선 李完은 퇴계의 조카로 많은 왕복서한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집안 일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문집이 전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권문해는 大東韻府群玉이란 탁월한 저술을 남겼지만, 그것이 퇴계학의 핵심 영역인 철학적 저술이 아니라 歷史辭典 혹은 百科辭典으로 평가되는 것이고<sup>104)</sup>, 문집에서도 퇴계의 철학적 논리를 계승하거나 발전시키는 雜著類의 글을 발견할 수 없으며, 퇴계와의 사이에 왕복한 서한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특이하다.

정탁은 문집과 왕복서한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문집 속에 雜著 항목이 따로 있으며, 黃汝一 黃暹 같은 門人이 있어서<sup>105)</sup> 그 학문적 계승관계를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실상 雜著 내용을 살펴보면 임란 당시의 避難行錄과 龍灣 見聞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본격적인 철학적 논설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문집의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의 시와 정치가로서의 疏 筭 啓 獻議 및 序 跋 記文 등 평범한 일상적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퇴계가 보낸 서한의 내용도 앞에서 지적한 대로 관리로서 경계할 사항이나 진퇴문제, 선물을 보내 준 데 대한 감사와 안부, 시에 대한 약간의 토론과 和答詩가 전부였다.

이처럼 예천지역 퇴계 문인은 예안 안동지역에서 이주해 온 인물, 특히 퇴계의 친-인척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저술이나 학설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예안-안동지역으로의 귀속성이 강하였다. 게다가 비교적 뚜렷한 업적을 남긴 정탁 권문해 같은 사람조차도 독자적인 학맥을

104) 申奭鎬, 大東韻府群玉影印序

105) 黃汝一은 정탁의 손서로, 그가 지은 정탁의 行狀(藥圃集, 續集, 권4)과 祭文(藥圃集, 續集, 권4)에서 자신이 門人임을 명기하였고, 黃暹도 輓詞(藥圃集, 권7)에서 門人이라고 명기하였다.

형성하여 전개시킬 수 있을 만큼 정통적이고 충분한 철학적 업적을 축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이후 전개된 이 지역의 퇴계학맥은 거의 대부분 이웃 안동과 상주 지역으로 흡수 편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권문해의 문집 서문을 상주의 立齋 鄭宗魯가, 墓碣을 봉화의 蒼雪齋 權斗經이, 鳳山書院常享祝文을 안동의 小山 李光靖이 짓고, 鄭琢의 行狀을 외손서이면서 안동 金守一의 사위인 黃汝一이, 墓表後敍를 안동의 李象靖이 지었던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정탁의 아들 淸風子 鄭允穆이 성주의 寒岡 鄭述 문인으로 편입되고, 최초로 퇴계의 편지를 따로 편집해서 李子書節要라는 중요한 저술을 남긴 益齋 鄭焜<sup>106</sup>과 그 아버지 鄭榮邦이 안동과 상주의 金誠一-柳復起와 柳成龍-鄭經世 학맥에 편입되었던 것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예천지역의 퇴계학맥을 이 지역에서 활동한 直傳弟子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지역 문인 중 비교적 많은 문집과 저서를 남긴 藥圃 鄭琢과 草簡 權文海 및 益齋 鄭焜 등의 학문적 성과와 학과적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정치하고 본격적인 개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06) 益齋 鄭焜(1602-1557)이 편찬한 李子書節要는 그의 9대손 鄭建模 당시에 와서 비로소 刻板 印刷하여 大山 李象靖이 편찬한 退溪書節要 보다 출간 연도가 약간 뒤진다. 그러나 그 처음 편찬 시기로 본다면 退溪書節要 보다 훨씬 앞서는 최초의 것으로 학술적으로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